

도내 제22대 총선 지역구를 가다 - 전주병

민주 VS 국힘 VS 녹색정의당 '3파전'

4·10 국회의원 선거를 22여일 앞두고 전북 전주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통적 민주당 텃밭답게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본선에 나서며, 나머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은 후보를 확정, 각각 여당 프리미엄과 진보 연합전선을 구축해 맹추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올드보이의 귀환'...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서 현역인 김성주 의원을 누르고 '올드보이의 귀환'을 알렸다.

정동영 전 장관이 경선에 통과한 데에는 정 전 장관이 공천에서 배제된 황현선 예비후보 측 관계자들과 정척연대를 펼친 것이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황 예비후보와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김호성 예비후보도 정동영 전 장관에 힘을 보태줬다.

5선에 도전하는 정동영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반도

민주 정동영, 경선서 현역 김성주 누르고 5선 도전

국힘 전희재, 세번째 도전... "전주를 광역도시로"

녹색정의당 한병욱, 정의+녹색당 연합정당 이뤄

평화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전북과 전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윤 정권의 백색독재, 연성독재와 맞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정동영이 앞장서서 윤 정권의 백색독재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데 중심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이후 정동영 예비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전주형 청년창업도시 △전주 북부권 교통난 해소 △전주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추가 이전 등 계속된 공약을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 출발지인 전주병 지역에서만 4선을 기록한 정동영 예비후보는 열린우리당 당의장, 대통령인수인사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을 지냈다.

▲3번째 국회의원 도전 국힘 전희

재, "어떻게 힘 달라"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전희재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보다는 다소 늦은 출마 소식을 알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전 예비후보는 세 번째 총선 출마 소식을 알리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안보,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향후 중앙과의 소통창구로서 전주를 100만 광역도시로 바꾸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부시절 전북출신 정치인들이 거의 모든 정부와 당직을 차지하면서 영광을 누렸지만 새만금 사업 중단과 김제공항 무산, 부안 방파제 유지 실패,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가 좌절됐다"며 민주당 전북 정치인을 향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전 예비후보는 전주부시장과 행정



정동영(민주) 전희재(국힘) 한병욱(녹색정의)

부지사 당시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과 논산~삼례간 호남고속도로 6차선 확장,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35사단 이전, 전주 한옥마을 개발 등 전주 발전의 밑그림과 전국 유일하게 분단된 전주 혁신도시 조성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주 원주 통합 △전주권 교통망 개선 △전주~김천 철도 △전주~무주 고속도로 추진 △전주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개발 추진 △팔복동 공업단지 리모델링 △송천동 일대 교통망 개선 △전주시의버스터미널 현대화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시너지... 녹색정의당 한병욱

지난 연말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는 정치는 끝장내고, 희망을 주는 진보

정치의 시대를 만들어 내는 데 모든 경험과 의지, 열정을 털어 넣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당시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욱(53) 예비후보가 2개월 뒤 녹색당과 함께 위기의 전북을 희망의 전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번 22대 총선에 임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생태적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를 전환할 것 △모든 시민의 소득을 보장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앞장설 것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구축해 돌봄사회로 나갈 것 △사회적 소유와 공적 투자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대체해 나갈 것 등을 약속했다.

특히 소득불평등의 경우 병원비 상한제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편적 최저소득 보장과 기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총선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총선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권(구·시·군)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거권이 교부(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교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지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하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제가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전북지역 예비후보들과 함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 공공성 실현·지역발전 이룰 것"

새미래 한기대 예비후보, 총선 남양읍 선거구 출마 선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차대 정당 새미래 금융혁신특별위원장이 한기대 예비후보(64)가 총선에서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남원시의 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인을 위한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 대잔치'로 민생 간담회"를 하고 있고, 일

당독재 지방정부는 '졸속 지역개발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 권리보호법과 소상공인 특례 금융보존제 추진, 지리산·섬진강 관광벨트 구축, 힐링 치유센터 유치 등을 공약했다.

한 예비후보는 전주 우석고와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경영학 석사)하고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해 남원 지점장과 전무 등을 거친 경제·금융계 인사다.

앞서 지난 11일 새미래 남원·장수·임실·순창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된 한기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순 예비후보 등과 본선 경쟁에 나선다. /특별취재반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日 이시카와현의회 위로 방문 울 초 지진피해 입은 이시카와현 일상 복구·새 시작 돕기로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15일 일본 이시카와현의 지진피해지역을 방문, 이시카와현 지사와 현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피해복구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에 애도를 표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와 전북도의 우호 협력 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지난 1월 1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사망 241명, 부상 1,427명, 23조6,000억 원 상당의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피해복구를 격려하고 양 지역의 향후 교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이시카와현은 2011년도에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문화·예술·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꾸준히 교류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양 의회도 11년 동안 우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 친구"라고 밝히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의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이시카와현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젠다 요시히코' 현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젠다 요시히코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은 "새해 첫날에 발생한 노도반도 지진은 환경 역사상 처음있는 큰 재해였지만 하루라도 빨리 피해지역의 복구와 생활의 재건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해속에서도 후쿠리쿠 신칸센을 가 나자에서 쓰루가까지 연장·개통하는 등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바라며, 한일관

계 및 양 지역의 우호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시카와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한화 1억3,000만원)를 예비비로 긴급 지원했으며,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시군 담당자 대상 사업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자치도 청 방역상황실에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폐척탄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원사업에 대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정 목표로 추진 중인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계획을 홍보하고, 축분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15개 사업(176억 원)이 시·군별 축산환경에 맞게 추진 되도록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도는 기존과 변경된 사업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시군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을 추진하고,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고창의 더 나은 내일 만들겠다"

민주 윤준병 의원 "검찰독재 종식·민주정부 수립" 포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정읍시 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윤준병을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경선은 정읍시민·고창군민과 정통 민주당원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4년간 정읍과 고창을 위해 흘렸던 땀과 노력, 그리고 민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바탕으로 정읍·고창의 봄을 앞당기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으라는 주민과 당의 준엄한 명령을 소명'으로 삼아 제22대 총선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선 중 정읍고창 지역은 가장 치열했던 곳 중 하나였던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함께 경쟁했던 유성

업 예비후보와 지지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비운 뒤 땅은 더 단단히 굳어지듯 경선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정읍고창의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읍고창의 발전을 위해 유 예비후보가 제시했던 공약과 미래비전들도 검토·반영해 정읍고창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이번 경선 승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했다. 실제 윤 의원은 "이번 제22대 총선은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연장돼 과거로 퇴보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아 미래로 진보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며 "검찰독재 종식과 민주정권 수립을 위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하며, 하나된 정읍고창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민주주의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 정읍고창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이려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이 빼앗긴 민주주의와 정권을 되찾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정읍고창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전역에 울리겠다"고 총선승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별취재반

전북자치도의회,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도장애인은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경우 일순간에 찾아온 장애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과 함께 변화된 신체기능과 삶의 조건을 수용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사회복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용근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처를 마친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초기, 접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중도장애인 학업·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동료지원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 심리상담 및 훈련, △가정 복지 중도장애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활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한 중도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